경기북부 非武裝地帶 재조망展

경기북부작가회 60여명 참가 오는 11월8일부터 전시

경기북부작가회는 11월 8일부터 포천반월아트홀전시장에서 기획전을 갖는다. 〈사진은 정호양 회장의 작품〉

경기북부작가회(회장 정호양)는 오는 11월8일부터 일주일간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경기북부 비무장지대 재조망전'을 개최한다.

경기북부지역 회화와 조각 작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경기북부작가회는 이번 작품 전시회를 위해 지난 8월15일 민통선과 월정역, 철원노동당사 등 비무장지대 일대를 돌며 이번 전시회 작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기북부작가회 60여명의 회원들이 경기북부 비무장지대를 재조망하는 작품 80여점을 전시하게 된다.

오는 11월8일 오후5시30분에 막을 열게 될 이번 전시회는 오프닝에 앞서 20분간 소원성취 발언굿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는 정호양 경기북부작가회 회장은 "특별테마전시회를 통해 분단국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의 새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 작가들이 새로운 테마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작가회는 지난 98년도에 의정부시를 비롯 포천시와 양주시,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 회화와 조각 전문 작가들이 창립한 순수 미술 단체로 알려져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ART는 내면세계를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오후 3시에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정보석, 이남희, 유연수씨등 세 남자의 속사포 수다 '아트'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전석 7천원이며 초등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이 작품은 프랑스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야스미나 레자(Yasmina Reza) 원작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를 졸업한 황재헌씨가 연출을 맡았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자연속 건강여행 즐겨보세요"

도리돌 한방마을 슬로푸드 체험관 준공

27일 이동면 도평3리(이장 오중옥)에서는 '도리돌 한방마을 슬로푸드체험관'의 준공식이 열렸다.

노원구 상계10동과 부천시 상동 아파트 주민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준공식에서 오중옥 이장은 "약사골은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한 마을 입지로 오염되지 않은 청정자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에게 인진쑥과 구기자, 계피, 당귀, 삼지구엽초 등 각종 한약재를 재료를 이용해 만든 한방김치가 제공됐고, 토종돼지 한방보쌈과 더덕무침 등을 맛보는 먹거리 체험 등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

27일 개관한 '도리돌 한방마을 슬로푸드체험관' 준공식에 참가한 노원구 주민들에게 한방김치와 산나물 등 먹거리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체험관은 지난해 3월 경기도에서 특성화 마을로 지정돼 도비 1억940만원, 시비 5천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725평의 부지에 건평 54평으로 건립되었다. 또 내부에는 한방김치 체험장과 교육장, 저온저장고, 주방기구 일체, 집기류 등을 갖추고 있다.

이동면 도평3리는 여름에는 반딧불이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청정한 지역으로 2.5㎞가량 이어진 약사동 계곡에는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져 수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약초를 이용해 김치를 담그는 제1회 한방김치축제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기념식 후 부천시 상동아파트와 도평3리 주민들의 자매결연식이 열렸다. 이를 통해 두 마을은 농산물교류 및 농촌체험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연재 수필

아빠 어렸을 적에(9)- 씨감자 사러가다

아버지께서는 평지에서 캐어 저장한 씨감자는 이듬해에 심으면 탄저병이 심하여 감자의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어른들은 씨감자를 구하기 위하여 큰 산을 넘어 명지산 기슭의 논남동까지 가야한답니다. 고랭지에서 수확하고 저장한 씨감자라야만 병충해가 적기 때문이랍니다.

봄방학을 하였습니다.

"얘, 너 내일 애비랑 씨감자 사러 갈래?"

아버지는 곧 4학년이 되는 나에게 처음으로 큰 산을 넘어가는 산행을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부지! 근데 몇 시에 떠나야 해요?"

"응 내일 아침 새벽 여섯 시쯤엔 가야할 게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이가 아닌 남자로 대접해 주시던 첫 순간입니다. 또한 아버지와의 산행이 처음 있는 일이기에 들떠서 간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초저녁, 채 아홉 시가 되기도 전에 불을 끄고 잠을 청했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 일어 나거라. 감자 사러 가자!"

엄마는 벌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해발 1189m의 국망봉 줄기인 도성고개를 넘어 씨감자를 사오는 일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랑 영재 아버지와 함께 주먹밥을 싸가지고 씨감자를 사러 따라 나섰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에 새벽밥을 먹고 나섰지만 큰 산 중턱에 오르니 벌써 숨이 차고 배가 고파왔어요.

"배고프지 않니?"

아버지께서 물으십니다.

"배고프긴 한데요. 아직 점심때도 안됐잖아요."

"아니, 모른긴 해두 벌써 열두 시가 훨씬 넘었을 게다."

시계가 없는지라 해만 바라보며 가늠할 뿐입니다.

해는 열시 방향에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열두 시가 훨씬 넘었다고 하십니다.

"해가 저기 떠 있는데요?"

내가 물으니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이으십니다.

"응, 산에서는 해가 중천에 있는 것 같아도 산은 하늘이 좁게 보이므로 해가 금방 넘어간단다."

산 위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바람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이 마치 산이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여기서 밥 먹고 가자!"

아버지와 영재 아버지께서는 시냇물이 흐르는 계곡에 군용더블 백 배낭을 내려놓으십니다.

"너 여기가 어디인 줄 아니?"

영재 아버지께서 물으십니다.

"잘…"

말 꼬리를 흐리며 되묻는 표정을 짓자 아버지께서 말씀을 이으십니다.

"여기가 도성고개란다. 옛날 후 고구려의 도성이 있던 곳이라 그렇게 부르지…. 산정호수가 있는 명성산은 왜 명성산인 줄 아니?"

"아니요."

"한문으로 울명 소리성을 써서 명성산인데 옛날 후고구려 시대에 왕건과 궁예의 큰 싸움이 있었단다. 왕건이 산꼭대기에 있는 궁예의 군사에 번번이 패하였지. 어느 날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명성산 아래를 가고 있는데 한 농부가 소를 부려 밭을 갈면서 회초리로 '이랴, 이 왕건이 같이 미련한 소야.' 그러더래."

"그래서요?"

나는 궁금하여 바짝 다가서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건이가 그 농부한테 물어보았지. '저 대관절 왜 왕건이 보고 미련하다고 하시오?' 그러자 농부는 껄껄 웃으면서 '아 왕건이가 미련하기 짝이 없지 않소? 이 산을 돌아가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궁예를 쉽게 잡을 수 있는데 바위 아래서 활을 쏘면서 제 군사만 죽이니 원 참…'하며 혀를 끌끌 차더라는 거야."

"그래서요. 아부지…"

"'그래서요'는 뭐가 그래서요 야, 농부가 시키는 대로 뒤로 돌아가서 궁예를 쳐서 크게 이겼지. 그래서 궁예가 울고 갔다고 하여 명성산이 된 거야. 성동 검문소에서 일동 쪽으로 오다 보면 파주골이라는 데 있지? 그 파주골은 왜 파주골인 줄 아니?"

"몰라요. 왜 그런데요?"

"원래 한문으로 패할 敗자 달아날 走자 패주골인데 궁예가 왕건한테 패해서 달아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란다."

"재미있어요. 아버지…"

엄마는 깨소금에 뭉친 주먹밥을 왈순마 라면봉지에 싸 주셨습니다.

영재 아버지는 보리개떡을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반찬도 없이 주먹밥을 먹는 것이 무슨 맛이 있느냐구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맛이 없으려니 했지만 땀을 흘리고 먹어서 그런지 너무나도 맛있네요. 참깨를 볶아 빻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한 주먹밥이 이렇게도 맛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옛다, 보리개떡 먹으련?"

보리개떡을 넘겨주시는 영재 아버지의 손은 일을 많이 하셔서인지 보리개떡처럼 거칠었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흐르는 물을 떠 마시며 함께 먹는 반미콩(밥이 맛있으라고 넣는 콩을 말하지만 사실은 쌀이 귀한 시절이라 쌀통의 쌀 오래가라고 넣은 콩이다.)이 듬성듬성 박힌 주먹밥과 보리개떡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주먹밥과 보리개떡으로 점심 끼니를 채우고 또다시 산길을 걷기 시작했지요. (계속)

김 순 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

금관문화훈장 국악인 이혜구 수상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이 이혜구 국악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올 한 해 문화예술계의 성과를 결산하는 2004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이 '문화의 날'인 지난 20일 10시에 정동극장에서 개최됐다.

문화훈장 서훈대상자는 모두 34명으로, 선정은 전국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 전문잡지, 지방자치단체,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 받았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문화관광부는 국악인 이혜구에 금관훈화훈장, 故김사엽 전 동국대교수, 故김희조 작곡가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추서하였고, 민속학자 임동권, 전 대한도서관연구회장 엄대섭, 소설가 박연희, 화가 김서봉, 서예가 김충현, 연극인 김동혁(예명:김동원)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하였다.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김문환, 극단산울림대표 임영웅,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정영화 등 8명에게 보관문화훈장을,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회장 최기영, 대교그룹 회장 강영중, 사진가 김기찬 등 8명에게 옥관문화훈장을, 금산문화원장 신정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이춘희, 대중가수 송춘희 등 9명에게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시인 故임세순(필명:임영조)에게는 보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아울러 이날 제36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제12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 시상식도 열렸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자로는 문화부문에 (주)까치글방 대표이사 박종만, 문학부문에 소설가 이청준, 미술부문에 홍익대학교 교수 홍숙호(예명:홍석창), 음악부문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 김영재, 연극·무용부문에 극단목화 대표 오태석, 대중예술부문에 극영화촬영감독 서정석(예명:서정민) 등 6명.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되었다.

아울러 장래가 촉망되는 20~30대의 젊은 예술가들을 선정하여 1993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의 수상자는 문학부문에 소설가 공선옥, 미술부문에 화가 배영환, 음악부문에 지휘자 성기선, 전통예술부문에 국악인 원완철, 연극부문에 극작가 김명화, 무용부문에 발레리나 김주원, 영화부문에 영화감독 장준환, 대중예술부문에 가수 김윤아(그룹 '자우림' 멤버) 등 8명으로 문화관광부장관 상패와 부상으로 상금 5백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모집대상

유치부
학생부
성인부
여성회원 특별지도
(주부반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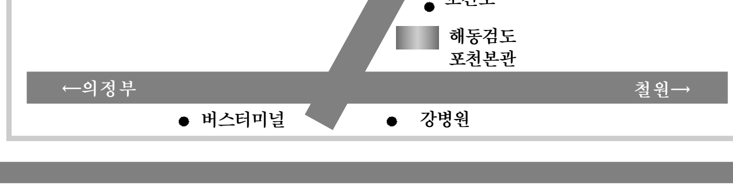
검도를 배우면…

1. 정신력 강화 2. 집중력 향상
3. 인내력 향상 4. 바른예절 함양
5. 호신술로 자기방어

<수련시간표>

오후: 01: 30~02:30, 03: 30~04:30, 05: 30~06:30
저녁: 07: 30~08:30, 09: 00~10:00

☞찾아오는 길



포천본관 (수시입관 · 차량운행) 031-532-5739 관장 권 기 동